

眞聖女王代の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전 기 웅*

<차 례>

1. 머리말
 2. 孝女知恩 설화의 분석
 - 1) 孝女知恩條와 貧女養母條의 비교
 - 2) 화랑 관련 기사의 검토
 3. 효녀지은 설화의 배경과 화랑세력
 - 1) 王京人의 동향
 - 2) 花郎 孝宗의 정치적 부상
 4. 맺음말
-

1. 머리말

眞聖女王代를 지나면서 신라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왕경의 지배층은 지방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으며 흉년과 지방민의 조세저항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 왕경의 하층민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孝女知恩 설화는 이러한 위급한 시기의 신라 왕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성에서 노비로 전락한 지은의 이야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kwjeon2000@hanmail.net).

기를 통해 당시 왕경인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화랑과 진성여왕이 등장하고 있어 지배층의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의 「孝女知恩條」와 함께 삼국유사 「孝善」의 貧女養母條에도 수록되어 있다. 양 사서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룰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의 화랑인 孝宗이 주요인물로 나오고 있어서 진성여왕대 화랑세력의 동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효종은 여왕의 신임을 얻어 헌강왕의 왕녀와 혼인하였고 이후 유력한 왕위계승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정치적으로 부상하였다. 이 설화를 통하여 경문왕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화랑세력의 활동 양상을 보다 선명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설화는 국문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역사학의 관점에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에 비하여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는 충분치 못하다. 이 설화의 가치는 몇몇 연구자에게 주목되기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만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¹⁾ 필자는 진성여왕대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효녀지은 설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설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정치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孝女知恩 설화의 분석

효녀지은 설화는 진성여왕대(887. 7~897. 6)에 신라의 왕경에서 일

1) 효녀지은 설화를 다룬 논문으로는 李鍾旭, 「新羅下代の 骨品制와 王京人の 住居」, 『新羅文化』 제7집, 1990과 全基雄, 「新羅 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집, 1994가 있다.

어났던 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국왕의 이름을 眞聖王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으므로 이 설화의 성립 시기를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진성여왕대는 신라의 몰락이 가시화 되는 까닭에 신라 멸망의 원인을 여왕의 실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근래 신라말의 정치사를 깊이 천착하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연구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이 시기의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²⁾ 이 설화는 진성여왕대의 사회와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경순왕 金傳의 아버지인 효종이 진성여왕 당시에 화랑이었다는 점과 헌강왕의 딸과 혼인하게 된 배경이 지은의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신라말의 정치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孝女知恩 說話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양 史書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³⁾ 두 사서는 같은 설화를 취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보인다. 먼저 두 가지 기록을 제시하고 상이한 부분들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字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집,釜山史學會, 1989.

鄭容淑, 「신라의 女王들」, 『한국사시민강좌』 15집, 一潮閣, 1994.

金昌謙,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59 합집, 1999.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權英五,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 76집, 大丘史學會, 2004. 8.

3) 『三國史記』의 孝女知恩條와 『三國遺事』의 貧女養母條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이 두 사서에 담긴 설화를 통칭하여 孝女知恩 說話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 이후 『三國遺事』는 ‘유사’로 『三國史記』는 ‘사기’로 약칭한다.

1) 孝女知恩條와 貧女養母條의 비교

『三國史記』卷48 列傳의 孝女知恩條에 수록되어 있는 이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녀 知恩은 韓岐部の 백성인 連權의 딸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나이 32세가 되어도 시집을 가지 않고 조석으로 어머니를 보살피며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먹을거리가 없으면 혹은 품팔이를 하고 혹은 구걸도 하면서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한지 오래되니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부친 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를 청하여 10여石을 얻었다.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날이 저물면 밥을 지어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렇게 사나흘이 지나자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기를 “전에는 음식이 나빠도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비록 좋기는 하지만 맛이 그 전과 다르고, 마치 속을 칼로 에이는 것 같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였다. 딸이 사실대로 이르니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네가 종이 되었으니 내가 차라리 빨리 죽느니만 못하구나”고 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므로 딸도 따라 우니 그 애처로움에 길가는 사람들까지 마음 아파하였다.

이때 孝宗郎이 出遊하던 중에 그것을 보고는 돌아와 부모에게 청하여 자기 집의 곡식 100석과 옷가지를 보내주고 또 지은이 몸을 판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였으며, 郎徒 수천 명도 각각 곡식 1석씩을 내어 그녀에게 주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또한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征役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곡식이 많아서 도둑에게 빼앗길까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교대로 지켜주도록 관청에 명하였다. 그리고 그 마을을 표방하여 孝養坊이라 하였으며 당나라 왕실에 표문을 올려 그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효종은 당시 第三宰相인 舒發翰 仁慶의 아들이로서 어렸을 때의 이름은 化達이었다. 왕이 이르기를 “비록 나이는 어리지

만 老成함을 볼 수 있다”고 하고는 그 형인 헌강왕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三國史記』 권48, 列傳8, 孝女知恩條)

한편 같은 이야기가 『三國遺事』 卷5의 孝善編 貧女養母條에도 수록되어 있다. 효선편에서는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는 孝의 행실에 대한 다섯 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적인 효의 강조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적 부모의 은공에 대한 보답이 내용의 기반이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유교의 효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승려 일연에 의해 편찬된 삼국유사의 성격상 불교적 내용이 설화의 중심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효선편 가운데서 가난한 민중의 삶을 불교적인 보은으로 응답한 이야기로는 眞定師孝善雙美條와 大城孝二世父母條가 이에 해당한다. 국왕이 아름다운 행실을 알게 되어 상을 내린 예로는 경덕왕대의 向得舍知割股供親條와 흥덕왕대의 孫順埋兒條의 설화가 있다. 그리고 화랑과 관련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貧女養母條가 있을 뿐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孝宗郎이 남산의 鮑石亭(혹은 三花述이라고도 한다)에서 遊할 때에 門客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왔다. 郎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芬皇寺 동쪽 마을에 나이가 스무 살 안팎의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껴안은 채 서로 소리내어 울고 있었으므로 그 마을 사람에게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이 여자는 집이 가난하여 결식으로 어머니를 봉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결식으로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몸값으로 곡식 30石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먹고 함께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기를 며칠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지난날의 거친 음식은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의 좋은 쌀밥은 창자를 찢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치 못하니 어찌된 일이나?’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가 통곡하므로 여인

은 ‘자기가 다만 어머니의 口腹의 봉양만 하고 마음을 살피지 못하였음을 탄식하여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郎은 이 말을 듣고 측은하여 곡식 100斛을 보내주니 郎의 부모도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郎의 모든 무리도 곡식 1,000石을 거두어 보내주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자 그때 眞聖王은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군사를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하여 도둑을 막도록 하였다. 또 그 坊에 旌門을 세우고 孝養의 마을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 집을 회사해서 절을 삼고 兩尊寺라고 하였다.(『三國遺事』 권5, 孝善9, 貧女養母條)

사기의 효녀지은조와 유사의 빈녀양모조는 서술방식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양 사서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는 유학자 문신관료인 김부식에 의하여 유교적 관점에 의해 紀傳體로 기술된 正史이며, 따라서 효녀지은조도 기전체 列傳의 서술형식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사기에서는 知恩이라는 이름과 그 출신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야기의 전개가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사기의 편찬자가 이 사건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열전 형식에 맞추어 기술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승려인 일연이 불교적 입장에서 야담과 설화들을 모아 그대로 수록한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는 포석정에 뒤늦게 도착한 두 낭도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기술하는 관점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면이 강조되거나 부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遺事에서의 지은이라는 인물과 효행에 대한 묘사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술과 이야기의 전개도 사기에 비해 허술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현실감이 있고 정황의 묘사도 상세하여 편찬자에 의해 정돈된 사기의 내용보다 설화의 본래 모습을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두 사서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표 1> 孝女知恩條와 貧女養母條의 비교

	孝女知恩條	貧女養母條
설화의 소재	『三國史記』卷48, 列傳8, 孝女知恩條	『三國遺事』卷5, 孝善9, 貧女養母條
이야기의 서술 형태	사건을 史記 편찬자가 정리하여 기술함	효종의 문객이 듣고 온 마을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술함
지은에 대한 소개	孝女 知恩 韓岐部の 백성인 連權의 딸	貧女, 이름 없음 芬皇寺 東里의 스무 살 안팎의 여자
지은의 부모	부 - 어려서 죽음 모 - 내용 없음	부 - 내용 없음 모 - 눈먼 어머니
지은의 처지	1)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심,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음 2) 혹은 품팔이를 하고 혹은 구걸도 하면서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함 3)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됨	1) 집이 가난하여 2) 결식으로 어머니를 봉양함 3) 남의 집에 고용인이 되어 몸값을 얻음
지은의 나이	32세	20세 내외
지은의 몸값	10여석	30석
지은의 효행을 안시기	孝宗의 出遊 중에	효종이 鮑石亭에서 遊할 때
목적자	효종	뒤늦게 온 두 명의 門客
효종이 지은에게 배운 내용	1) 효종이 부모에게 청하여 가속 100석과 옷가지를 보냄 2) 지은이 몸을 판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1) 효종이 곡식 100斛을, 郎의 부모는 옷 한 벌을 보냄 2) 내용 없음
낭도들이 배운 내용	郎徒 수천 명이 각각 곡식 1石씩	郎의 千徒가 곡식 1,000石
왕의 명칭	大王	眞聖王
왕이 배운 내용	1) 벼 500석과 집 한 채 2) 征役을 면제 함	1) 곡식 500석과 집 한 채 2) 내용 없음
왕의 보호 조치	도둑에게 빼앗길까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교대로 지켜주도록 勸청에 명하였다.	군사를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하여 도둑을 막도록 하였다
효행을 기리는 조치	1) 그 마을을 표방하여 孝養坊이라 하였다 2) 당나라 왕실에 표문을 올려 그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 그 坊에 旌門을 세우고 孝養의 마을이라고 하였다 2) 내용 없음
뒷이야기	효종에게 兪江왕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 집을 회사해서 절을 삼고 兩尊寺라고 하였다
효종에 대한 소개	第三宰相인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의 이름은 化達이었다	내용 없음

첫째, 사기에서는 지은이라는 이름과, 韓岐部の 백성인 連權의 딸이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고 하여 지은의 처지와 신상에 관한 소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비해 유사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분황사 동쪽 마을의 스무살 안팎의 여인이라는 것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지은의 부모에 대해서는 사기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하였으나 유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기에 설명이 없는 대신 유사에서는 눈이 멀었다는 사정이 부가되어 있다.⁴⁾

둘째, 사기와 유사의 기록은 구체적인 몇몇 수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지은의 나이에 대해서는 각기 32세와 20세 내외로, 지은의 몸값은 10여석과 30석으로 각기 다르며, 효종의 낭도들이 지은에게 보낸 은전의 수량을 사기는 낭도 수천 명이 각기 1석씩, 즉 수천石에 이르는 것이 되지만 유사는 단지 1000석이라 하였다. 효종이 보낸 물품에 대해서도 사기에서는 효종이 그 부모에게 요청하여 보낸 것으로, 유사에서는 100석은 효종이, 효종의 부모는 옷 한 벌만을 보낸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은이 몸을 판 이유나 형태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보인다.

셋째, 두 기록에는 서로 없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사기에만 있고 유사에는 없는 내용은, 지은이라는 이름과 아버지 연권의 출신부와 신분 이름, 효종이 지은을 양민으로 만들어 준 사실, 국왕이 지은의 征役을 면제해준 것과 당나라 왕실에 표문을 올렸던 것, 그리고 특히 효종에 대한 소개와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등이며, 사기에는 없는 내용으로 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은이 살던 곳이 분황사 동쪽마을이고, 지은의 홀어머니가 장님이라는 것, 효종이 出遊한 곳이 포석정이며 낭도를 門客이라고 한 점, 당시의 국왕

4) 눈먼 어머니와 효녀라는 테마는 심청전의 이야기와 흡사하여 이 설화가 심청전의 근원적 모티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된다.

을 眞聖王이라고 명시한 것, 지은이 탄식하며 말한 내용, 후에 그 집을 회사하여 兩尊寺가 되었다는 것 등이다.

넷째, 효종의 비중에 대한 차이이다. 유사에서는 효종의 역할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효종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 낭도에게 늦은 까닭을 물었다는 것과 그들의 말을 듣고 측은하여 곡식 100石을 보내주었다는 것뿐이다. 지은 모녀가 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포석정에 뒤늦게 도착한 두 낭도이며, 그들이 효종에게 지은의 사정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두 낭도가 전한 사연도 마을사람의 설명을 옮긴 것이지 지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서 知恩의 실체는 이야기 전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종과 지은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직 두 낭도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사에서는 많은 부분이 지은이 몸을 팔게 된 애처럽고 안타까운 처지와 지은과 어머니 사이에 교감하는 끈끈한 애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지은은 몸을 팔아 노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두 모녀가 굶주려 죽을 만큼 다급한 처지도 아니었고 아주 이별을 하여 다시 만나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좋은 쌀밥을 먹고 있었고, 지은은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면 출퇴근하는 정도의 종살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곤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녀의 애틋한 사랑이라고 하겠다. 눈먼 어머니는 ‘나 때문에 네가 종이 되었으니 내가 차라리 빨리 죽느니만 못하다’고 하며 딸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마음 아파하고 지은은 ‘口腹의 봉양만 하고 마음을 살피지 못하였음’을 탄식하는 정황이었다. 유사의 빈녀양모조는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 몸을 판 딸과 그 딸의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라는, 모녀간에 오고가는 애틋한 감정의 교류를 묘사하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어서 효종과 국왕의 시혜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사기에서는 효종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 효종은 出

遊 중에 지은과 어머니가 함께 울고 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곡식 100석과 옷가지를 보내주고 지은을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 준 것도 효종이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사에서와는 달리 효종은 설화의 전면에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화의 말미에 별도로 효종의 신상 소개와 헌강왕녀와의 혼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사기의 서술이 효종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은의 孝行 못지 않게 효종과 국왕의 빈민구휼 행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지금까지 사기와 유사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사서는 구체적인 면에서 얼마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가 되는 이야기의 큰 틀은 같다. 즉 하나의 사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효녀지은조와 빈녀양모조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⁵⁾

2) 화랑 관련 기사의 검토

이 설화에는 진성여왕대 화랑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화랑의 鮑石亭 出遊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적 위기가 증대되고 있었던 진성여왕대의 상황에서 화랑들의 동향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유사의 빈녀양모조에는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遊하였다. 門客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왔다.”고 하여 효종랑과 그 낭도들이 鮑石亭에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遊를 ‘놀았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遊는 포석정이라는 장소가 流觴曲水の 놀이터였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어우러져서 화랑과 낭도들이 모여서 즐거이 오락을 하면서 한바탕 놀

5) 李鐘旭, 앞의 논문, 1990, 170~173쪽 참고.

았다는 식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遊라는 말이 꼭 연회와 같은 즐거운 유희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화랑들에게 遊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A-1 景德王이 栢栗寺에 遊幸하여 산밑에 이르렀을 때 땅 속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을 파게 했더니 큰 돌이 나왔는데 사면에 四方佛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掘佛寺라고 하였다.(『三國遺事』 권3, 塔像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A-2 어느날 大王이 開雲浦(鶴城 서남쪽에 있으며 지금의 蔚州이다)에서 遊하다가 돌아가려고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다. 왕이 괴상히 여겨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日官이 말하기를 “이것은 東海龍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일을 맡은 관리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지으라고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을 개운포라 이름했다. 동해룡이 기뻐하여 이내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의 수레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가 왕의 정사를 도우니, 이름을 처용이라 했다.(『三國遺事』 권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A-1의 사료에서 경덕왕은 栢栗寺에 遊幸하였을 때 땅 속에서 울리는 佛聲을 들었으며, 헌강왕은 개운포에 遊할 때 동해룡을 만나게 된다(A-2). 신라의 왕이 부처나 용과 같이 신성한 존재를 만날 때가 遊의 도중이었음을 볼 수 있다. 국왕과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와의 조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때 遊로 표현된 국왕의 행차는 단순한 놀이일 수 없으며 국가의 수호신이나 각 지역의 신령스런 존재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遊는 국왕뿐만 아니라 화랑의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B-1 그 후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花郎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드니,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遊娛하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어, 착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三國史記』 권4, 眞興王 37년조)

B-2 (夫禮郎)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金蘭에 遊하였는데, 北溟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狄賊에게 사로잡혀 갔다. 門客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대로 돌아왔으나 홀로 安常만이 그를 쫓아갔다.(『三國遺事』 권3, 塔像4, 栢栗寺)

B-3 제5 居烈郎, 제6 實處郎(혹은 突處郎이라고도 한다), 제7 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風岳에 遊하려고 하는데 慧星이 心大星을 범하였다. 郎徒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여행을 중지하려고 했다. 이때에 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궤변은 즉시 사라지고 日本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하여 郎徒들을 보내어 풍악에서 遊하게 했다.(『三國遺事』 권5, 感通7, 融天師 慧星歌 眞平王代)

B-4 왕의 이름은 膺廉이니 나이 18세에 國仙이 되었다. 弱冠에 이르자 憲安大王은 그를 불러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묻기를 “郎은 국선이 되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遊하였으니 무슨 이상한 일을 본 것이 있는가.” 하였다. 낭이 대답하기를 “신은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낭이 말하였다. “남의 윗자리에 있을만 하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 하나요,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둘이요, 본래부터 귀하고 세력이 있는데도 그 위세

를 부리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그 셋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의 어짐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아내로 삼기 바란다.”(『三國遺事』 권 2, 紀異2, 四十八 景文大王)

B-5 國仙 邀元郎·響昕郎·桂元·叔宗郎 등이 金蘭에서 遊覽하는데 은근히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이 있었다. 이에 노래 3首를 짓고, 다시 心弼 舍知를 시켜서 공책을 주어 大矩和尚에게 보내어 3歌를 짓게 하니 첫째는 玄琴抱曲이요, 둘째는 大道曲이요, 셋째는 問群曲이었다. 대궐에 들어가 왕께 아뢰니 왕은 기뻐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 (『三國遺事』 권2, 紀異2, 四十八 景文大王)

사료 B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화랑의 활동 중에는 遊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B-1에서는 화랑의 무리들이 산수간을 遊娛하는 가운데 그 인물됨을 알고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등용하였다고 하였다.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기준으로 화랑도들이 遊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실과 덕성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2, 3은 화랑의 遊가 神異함과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夫禮郎의 낭도들이 명주의 북쪽 경계 지역에까지 올라가 遊하다가 北狄을 만나 화랑이 납치되는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안상이 부레랑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 玄琴과 萬波息笛의 신이함과 연결되고 있으며(B-2), 居烈郎 實處郎 寶同郎 등 3명 화랑의 무리가 풍악산에 遊하려다가 혜성이 나타나 혼란스러워 할 때 응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일본군을 물러가게 한 것도 또한 신이함과 관련되고 있다(B-3). 국가의 보물이나 향가의 주술적인 힘이 화랑의 遊와 관련되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B-4, 5는 화랑에게 遊가 정치적 활동과도 결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안왕은 각지를 遊하고 돌아온 국선 응림에게 어떤 특이한 것을

보았느냐고 질문하고는 응렴의 답변이 마음에 흡족하므로 곧 사위로 삼았다는 것이다(B-4). 응렴은 이때 현안왕녀와의 혼인을 통해 왕위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현안왕의 사후 왕위에 올라 경문왕이 되었다. 그리고 邀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 등 경문왕대의 4인의 화랑이 金蘭에 遊하면서 왕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을 품고 3수의 노래를 지은 것은(B-5) 화랑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볼 때 효종과 낭도들의 遊를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오락의 성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효종과 낭도가 모인 곳이 鮑石亭이라는 사실은 더욱 흥미롭다.

포석정은 流觴曲水の 유적지로 알려져 있으며,⁶⁾ 景哀王이 건원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곳에서 놀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다. 경애왕의 포석정 놀이는 신라 멸망을 재촉한 행위로 오랫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효종과 화랑무리가 포석정에서 遊하였다는 것도 경애왕의 경우와 비교되어 역시 연회를 베풀며 유희하였던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포석정은 단순한 연회장소가 아니라 팔관회와 관련이 있는, 호국제사와 같은 신성한 제례 의식이 행해지던 곳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라에서 연회는 주로 臨海殿에서 열렸으며, 포석정은 현강왕이 南山神을 만난 것에서 보듯이 신성한 장소이며, 경애왕은 건원의 침입을 앞두고 포석정에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⁷⁾ 혹 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을 마치고 나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뒷풀이와 같은 성격이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6)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 4·5합집, 1993, 54~57쪽. 流觴曲水는 원래 중국에서 3월 삼짇날 九曲의 流水에 잔을 띄어놓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 놀이였다고 한다.

7) 姜敦求, 앞의 논문, 1993. 강돈구는 '遊'를 단순히 '놀러갔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기 어렵고,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건원의 침입을 경애왕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당시는 음력 11월로써 추운 한겨울에 야외에서 연회를 즐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포석정을 연회 장소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이다.

헌강왕이 南山神을 만나 御舞祥審이란 춤을 얻은 것도 이 포석정이었다. 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신하들은 보지 못하므로 왕이 산신의 춤을 추어 보았다. 그 후부터 그 춤이 널리 행하여져 고려시대까지 유행하였다 한다.⁸⁾ 신라인에게 南山은 신성한 장소로 靑松 皮田 金剛과 더불어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던 四靈地의 하나이며⁹⁾ 오늘날까지도 무수한 불교유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불교의 성지였다. 왕과 남산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인 포석정은 그 자체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¹⁰⁾

한편 『화랑세기』에서는 포석정을 匏石祠라고 하여 吉禮가 행해지던 사당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화랑 文弩의 畫像이 있었다고 하여 화랑과 포석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¹¹⁾ 또한 1999년 5월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포석정 남쪽 담장 밖에서 ‘砲石’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포석정 유적 외에 지붕을 덮은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며 포석정이 사당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포석정이 연회장소가 아니고, 종교적 의식을 행한 사당이었거나, 국가의 위급한 시기에 행사를 갖는 장소, 또는 八關會와 같은 국가적 의식이 행해지던 장소였다고 한다면 효종왕 무리의 포석정 出遊도 그와 유사한 행사와 관련된 회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늦게 도착한 두 사람에게 화랑이 굳이 그 이유를 캐묻고 있는 것은 포석정에

8) 『三國遺事』 권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9) 『三國遺事』 권1, 紀異1, 眞德王.

10) 姜敦求, 앞의 논문, 50~51쪽.

11) 『花郎世紀』, 8世 文弩條. 필사본 화랑세기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대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포석사에 관한 부분은 ‘砲石’ 명문 기와가 출토되는 등 비교적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화랑세기가 후대의 한 사람에 의해 순전히 창작되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의 행사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저 단순한 오락을 위해 무리를 모은 정도라면 낭도들이 그리 급히 달려갈 일도 아니며 더욱이 늦게 도착한 두 사람에게 굳이 그 이유를 추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鮑石亭 出遊는 화랑도 무리가 회동하여 국가와 왕실에 대한 어떤 기여를 다짐하기 위한 회합의 자리는 아니었을까 한다. 화랑들은 경문왕 이후 정치에 깊이 간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진성여왕 초기의 정국을 이끌던 魏弘이 죽은 뒤 왕경의 위기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색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화랑에게도 왕실을 위한 움직임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앞서 경문왕대의 화랑인 요원랑 등 4명의 화랑과 그 무리들이 金蘭에 모여 왕을 위하여 정치를 보필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그 뜻을 노래로 짓고 대구화상에게 곡을 만들게 하여 경문왕에게 보냈던 사실은(A-5) 이 포석정 모임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¹²⁾

이처럼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제의와 관련된 행사의 엄숙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몸을 팔았던 가난한 여인의 애처로운 사연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낭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효종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모였던 낭도 무리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을 것이다.

효종은 1백 석과 옷가지를 전해주었으며 아울러 그녀의 몸값을 보상해 주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지은에게 베푼 은혜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은에게 쏟아진 은덕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1석씩을 모아서 주었다고 하였으니, 그 총액은 수천 석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다. 유사 기록에 따라 1,000석이라고 해도 그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사기에서는 당시 지은의 몸값을 10여 석이라고 하였으므로 거의 100명

12) 全基雄, 앞의 논문, 1994, 7~9쪽.

의 노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효종과 그의 낭도들이 지은에게 배운 은덕은 놀랄만큼 풍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은의 구휼은 효종의 개인적인 시혜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효종과 함께 하였던 그의 수천 낭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써 왕경의 수천 명 청년이 참여한, 거대한 사회운동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효종의 낭도들이 보여준 단합의 정신과, 단결된 힘은 이 시기 화랑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지은의 일을 통해 나타난 花郎徒의 이러한 모습은 鮑石亭 出遊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효녀지은 설화의 배경과 화랑세력

화랑도의 동향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이 일에 진성여왕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은과 효종의 미담이 국왕에게 전해지니 진성여왕은 또한 벼 5백 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다.¹³⁾ 이때 여왕이 하사한 집은 수천 석의 곡식을 쌓아둘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진 저택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훗날 그 집으로 사찰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여왕은 곡식이 많아 도적이 들까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지켜주게 하는 배려까지 잊지 않았다.

진성여왕의 시혜는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여왕은 지은이 살고 있던 마을을 孝養坊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는 국왕의 은총이 지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表文을 올려 당나라 왕실에게

13) 경덕왕이 넓적다리를 베어 아버지를 봉양하였던 向得에게 내린 상은 租 500석이며, 흥덕왕이 孫順에게 내린 포상은 집 한 채와 해마다 메벼 50석을 준 것이었다.

까지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을 알렸다고 한다. 여왕이 베푼 조치는 가난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해버린 한 여인에게 주어진 은덕으로서는 지나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미 효종과 낭도들에 의해 보내진 곡식만으로도 넘칠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하겠는데 진성여왕은 어째서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효종 개인에서 모든 낭도로, 다시 진성여왕으로 지은에 대한 시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설화의 또 하나의 수수께끼인 셈이다.

여기에서 여왕이 지은의 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애쓰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 미담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당시 왕경인들의 생활상이 팍박하여 왕실과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왕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몰락해 가는 왕경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당시 왕경인들의 동향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王京人의 동향

진성여왕이 즉위하기 불과 수년 전인 현강왕대 왕경인의 생활은 펍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 49대 현강대왕 때에는 서울에서 바다 어귀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거리에서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 (『三國遺事』 권5, 處容郎 望海寺)

9월 9일에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서울 백성의 집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노래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왕이 시중 敏恭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로 지붕을 덮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숯으로 밥을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인가?” 민공이 “臣도 역시 일찍이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하고는 아뢰었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陰陽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은 평온하여 민간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덕의 소치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는 경들이 도와준 결과이지 朕이 무슨 덕이 있겠는가?”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憲康王 6년 9월조)

헌강왕 6년(880) 9월 당시 왕경은 왕이 月上樓에 올라 侍中 敏恭과 함께 변화한 왕경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서로 치하하리만큼 번영을 누리고 왕경인은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다. 이러한 풍요는 왕경 자체 내부의 생산기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수탈을 통해 누리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왕경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해(887) 왕실은 전국 諸州郡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주는 은혜를 베푼 바 있었다.¹⁴⁾ 죄수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린 것과 함께 취해진 이 조세 감면의 조치는 진성여왕이 즉위와 함께 백성에게 은혜를 내림으로써 민심을 회유하고 여왕의 즉위를 경사스럽게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무렵 지방에서는 누적된 조세 수취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불만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번 세금을 내지 않게 된 지방민들은 다음 해 까지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왕경의 생활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왕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각지에 사신을 파견하여 독촉을 하였다.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오지 않아,

1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卽位條.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國用이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眞聖王 3년조)

이때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려는 관원들과 저항하는 지방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벌주에서 일어난 元宗과 哀奴의 난을 비롯하여 지방민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¹⁵⁾ 나아가 순식간에 각지에 도적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왕경은 대부분의 물자를 지방으로부터 수탈하여 유지하였던 것이나, 이제 지방민들이 조세를 거부하면서 왕경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지은과 같이 결식으로 지탱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먹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왕경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노비로 몰락하게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은 단지 지은 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식마저 어려워질 정도로 왕경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지방세력가들은 자립하여 왕실을 외면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세 수입은 감소되어 國用은 결핍하게 되었다. 헌강왕대의 번영에 익숙해져 있던 왕경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여왕과 측근의 寵臣들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왕거인 사건은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 51대 진성여왕이 임금이 된지 몇 해 만에 乳母 覺好夫人과 그녀의 남편 魏弘 匠干 등 3,4명의 寵臣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國人이 이를 근심하여 이에 다라니의 隱語를 지어 써서 길에 던졌다. 왕과 權臣들이 이것을 얻어 보고 “王居仁이 아니면 누가 이런 글을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거인을 옥에 가

15)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3년조.

두었다. 居仁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獄에 베풀
을 쳐 풀어 주었다. (『三國遺事』 권2, 紀異2, 眞聖女大王 居陁知)

사기에서는 이 사건이 진성여왕 2년조에 기재되어 있다.¹⁶⁾ 그러나 “도적이 벌떼와 같이 일어났다”는 상황은 그 다음해인 3년의 일임으로 왕거인 사건의 발생은 진성여왕 3년, 또는 그 후 멀지 않은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라니의 은어로 여왕과 그 측근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지어 거리에 던진 사람이 國人이라는 점이다. 이미 國人들은 진성여왕과 정치세력에 대해 비난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⁷⁾

國人들은 왕경의 주요 구성원이었다.¹⁸⁾ 이들이 왕실에 대해 저항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이유는 진성여왕과 측근의 실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왕경인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까닭일 것이다. 이러한 불온한 상황에 마주친 지배층은 생활고에 처한 왕경인을 달래고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껍리가 필요하였다. 이런 시기에 효녀 지은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해지고, 왕경의 백성에서 남의 집 종으로 몰락한 한 여인을 귀족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랑 효종이 구출한 미담이 나타난 것이었으니 지배층은 이 절호의 소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¹⁹⁾

진성여왕까지 나서서 노비로 전락한 한 여인을 구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지배층이 의도한대로 왕경인의 마음을 위무하고 달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여왕이 효종과 헌강왕의 딸을 혼인하게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6)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眞聖王 2년 2월조.

17)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해안, 1996, 28~48쪽.

18) 全基雄, 앞의 책, 1996, 42~46쪽.

19) 孝女知恩의 일이 있었던 시기는 왕거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 아마도 진성여왕 3년경이거나, 적어도 그다지 머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효종의 혼인도 같은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

2) 花郎 孝宗의 정치적 부상

효녀지은 설화에서 지은과 함께 설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은 화랑 효종이다.

효종은 46대 문성왕의 후손으로 孝恭王 6년에는 大阿槃으로 侍中의 지위에 올랐다.²⁰⁾ 그는 효공왕 요의 등장과 신덕왕 경휘와의 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헌강왕녀인 桂娥太后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金傳는 경애왕이 견훤에게 살해된 후 견훤의 추대를 받아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신라의 마지막 왕인 敬順王이다. 또한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할 때 고려 태조와 신라 왕실은 서로 혼인을 주고 받았는데 이때 고려 태조에게 제6비 神聖王后를 남비하였던 知大耶郡事 金億廉은 효종의 형이다.²¹⁾ 신성왕후가 낳은 安宗은 景宗妃 憲貞王后와 사통하여 大良君을 낳았는데 그는 목종을 이어 왕위에 올라 현종이 된다.²²⁾ 효종과 그의 가계가 나말여초 정치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효종의 아버지는 舒發翰 仁慶이다. 인경은 당시에 第三宰相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실력을 갖춘 진골 귀족이라고 하겠다.²³⁾ 효종의 어렸을 때 이름은 化達이라고 하여 효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는 화달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孝宗이란 이름의 ‘孝’는 지은의 효행과 연결되고 있어서 혹시 이 일이 효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과 관련되지는 않을까 한다.

효녀지은 사건은 효종의 정치적 부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은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효종은 그 주인공으로 왕경인의 칭송과 사랑을 얻게 되었고 그의 낭도들이 보여준 단합과

20) 『三國史記』 권12, 孝恭王 6년 3월조.

21) 『三國史記』 권12, 敬順王 9년 12월조.

22) 全基雄, 앞의 책, 1996, 156~165쪽.

23) 曹凡煥, 「新羅末 花郎 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 31~33쪽. 조범환은 효종의 혼인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아버지인 仁慶의 정치 경제적 능력과 일천명 낭도의 군사적 기반을 들고 있다.

강한 결속력은 효종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효종의 부상은 여왕의 인정을 얻고 헌강왕녀와 혼인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진성여왕은 지은의 일이 있는 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老成함을 볼 수 있다”고 하며 효종에게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맞게 하였는데, 이 말은 헌안왕이 응림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遺詔에서 한 말과 같아서 흥미롭다.

왕이 병으로 누워 위독해지자, 측근들에게 말했다. “과인이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이 딸만 두었다. 우리 나라에는 예전에 善德·眞德 두 여왕이 있었지만, 이는 암탕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비슷한 일로써, 이를 본받을 수는 없다. 사위인 膺廉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老成한 덕을 갖추고 있다. 그대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워 섬긴다면, 반드시 朝宗의 훌륭한 후계자를 잃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라에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憲安王 5년 春正月條)

헌안왕 당시와 진성여왕 때 왕실의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 헌안왕은 두 딸만 있었을 뿐 후사를 이어갈 아들이 없는 처지였으며 진성여왕 때에도 왕위를 이을만한 경문왕가 왕실 출신의 남자가 없었다. 여왕의 오라버니인 정강왕은 후사가 없었고 헌강왕에게는 훗날 효공왕이 되는 요가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왕실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²⁴⁾ 당시 경문왕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헌강왕의 두 딸만이 있었던 것이다. 헌안왕이 화랑 응림을 택해 딸과 혼인케 하고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과 진성여왕이 화랑 효종에게 헌강왕의 딸과 혼인케 한 것은 서로 닮아있다.

따라서 효종과 헌강왕녀와의 혼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24) 『三國史記』 권11, 眞聖王 9년 10월조.

진성여왕 이후의 왕위계승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이때 효종은 두 딸 가운데 장녀와 혼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차녀는 아직 어린나이로서 혼인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⁶⁾ 또한 전에 경문왕 응림이 헌안왕의 사위가 될 때에 헌안왕의 두 딸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미인인 차녀와 혼인하려고 하였는데 낭도의 上首인 範敎師는 장녀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며 장녀와 혼인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차녀와 결혼하면 면전에서 죽을 것이라고 협박조의 충언을 하였다.²⁷⁾ 그것은 장녀와의 혼인이 왕위계승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응림은 헌강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효종은 장녀와의 결혼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진성여왕이 효종과 헌강왕녀를 혼인케 하였다는 것은 다음 왕위의 후계자로 효종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이다.²⁸⁾ 즉 효종은 지은 사건을 통해 왕위계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조금 더 추측을 허용한다면, 진성여왕이 지은의 일을 널리 선전한 배후에는 효종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도록 하여 왕경인의 칭송을 얻도록 하려는 의도가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어째서 진성여왕은 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그것은 진성여왕의 아버지인 경문왕이 화랑출신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은 모두 화랑의 자녀

25) 헌강왕에게는 桂娥太后와 資成王后의 두 딸이 있었는데, 계아태후는 효종과, 자성왕후는 神德王 朴景暉와 각기 혼인하였다.

26) 진성여왕 즉위시에 헌강왕의 장녀는 10대 초반의 연령에 해당한다. 860년 경문왕이 헌안왕녀와 혼인하였으므로 장남인 헌강왕의 즉위시(875) 연령은 많아야 15세 미만이며, 헌강왕이 즉위와 함께 결혼하여 다음해 장녀를 낳았다고 하여도 진성여왕 즉위시(887)의 연령은 많아야 12세 미만이다. 효종과의 혼인이 여왕 3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차녀는 아직 혼인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27) 『三國遺事』 권2, 紀異2, 四十八 景文大王.

28) 全基雄, 「新羅 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집, 1994, 11~12쪽.

라는 경문왕가 혈통의 특징과, 경문왕 이후의 왕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지집단은 화랑세력이었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신라하대에 이르면서 화랑의 정치적 역할은 급격히 증대되었다.³⁰⁾ 김헌창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화랑이었던 明基와 安樂은 자신들의 낭도를 이끌고 반란군의 진압에 나서고 있어서 왕위계승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³¹⁾ 경문왕 응림은 화랑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덕망을 인정받고 憲安王의 신임을 얻어 헌안왕녀와 혼인을 함으로써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경문왕대에는 4명의 화랑이 모여 향가를 짓고 곡을 붙여 국왕에게 전하고 정치에 보필할 것을 맹서하였다. 이런 화랑의 활동은 정치세력으로서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성여왕대에 이르면 화랑은 왕실의 측근세력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왕거인 사건에서 國人들이 다라니의 은어를 통해 비난한 국왕 측근의 寵臣들이나 각간 위홍이 여왕 즉위 초 『三代目』을 편찬한 것, 여왕이 美少年과 더불어 음란했다는 비난을 듣게 된 것 등은 여왕의 주변에 화랑과 연결된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일이다.³²⁾

화랑 출신인 응림이 왕위에 오른 후 경문왕가 왕실의 유력한 지지세력은 화랑이었으며, 헌강왕과 정강왕을 지나며 고립된 진성여왕대의 왕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지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花郎勢力이었던 것이다. 효종의 화랑세력이 국가를 위해 회합하여 단결된 낭도들의 힘을 보여주거나 화랑 효종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왕경인들에게 인망과 사랑을 받는 등 화랑세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왕

29)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집, 釜山史學會, 1989.

30) 신라 하대의 화랑세력에 대한 서술은 全基雄, 앞의 논문, 1994; 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를 참고할 것.

31) 『三國史記』 권10, 憲德王 14년 3월 18일조.

32)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집, 1989.

실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진성여왕의 실정과 측근의 충신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신라는 분열하여 지방세력이 이탈하는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문왕가 왕실과 함께 화랑세력도 위축되었다. 화랑세력은 한계성을 노출하고 정치, 사회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으며 불교의 선종과 六頭品 유학자, 그리고 國人の 지지를 얻은 경희세력이 각축을 벌이며 대두하였던 것이다.

효종은 왕위에 오르는데 실패하였다. 진성여왕 9년에 현강왕의 아들인 曉가 나타나 태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여왕은 그에게 선양하여 왕위를 넘기고 물러남으로써 효종은 진성여왕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였다. 효공왕 때에는 侍中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나, 경희와의 경쟁에서 밀려 효공왕 사후에는 國人の 추대를 얻은 神德王 경희가 왕이 되었다. 화랑세력을 배경으로한 효종의 왕위에 대한 도전은 두 번에 걸친 실패로 좌절되었고 경문왕가의 김씨왕실은 효공왕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효종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경문왕가를 이은 박씨왕가는 견훤의 침입으로 경애왕이 살해됨으로써 막을 내리고 효종의 아들인 金傅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김씨왕실은 복구된다. 견훤에 의해 추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순왕 김부의 등장에는 효종세력의 존재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³⁾ 신라말 정치사의 전

33) 신라말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집, 釜山史學會, 1989.

曹凡煥,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歷史學報』 129집, 歷史學會, 1991.

全基雄,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 17집, 釜大史學會, 1993.

음선혁,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全南史學』 11집, 全南史學會, 1997.

曹凡煥, 「新羅末 花郎 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

개과정에 효종과 그 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세력이 정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孝女知恩의 일인 것이다.

4. 맺음말

삼국유사에서는 많은 설화들이 담겨 있다. 그것을 단순한 옛이야기로 흘려 버리기에는 하나 하나 속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孝女知恩 설화는 단순히 몸을 팔아 눈먼 어머니를 봉양한 여인의 효도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왔을 뿐이지만, 그 배경을 들쳐보면 역동적인 신라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화가 신라의 분열이 시작되는 진성여왕대를 배경을 하고 있었던 점과 화랑 효종이 설화에 중요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花郎徒의 포석정 出遊 사실과, 효종의 모든 낭도와 진성여왕까지 가담하여 지은을 구출하고 국내외로 널리 선전한 것, 효종과 헌강왕녀와 혼인 사유 등은 효녀지은 설화가 전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효녀지은 사건은 지은에 대한 구출이 효종, 효종의 부모, 효종의 모든 낭도, 진성여왕으로 자꾸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 결과 지은에게 주어진 물품의 총액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으며 효종은 이 일로 헌강왕녀와 혼인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은 단순한 빈민의 구출 차원을 넘어서 있다. 이 설화의 수수께끼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진행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金昌謙,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 · 59합집, 1999.

권영오,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집, 부경역사연구소 2002. 6.

필자는 진성여왕대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이 설화의 배경과 의미에 접근하였다. 화랑들의 鮑石亭 出遊를 여왕대의 위급한 현실에서 국가를 위한 화랑도의 대회의 성격으로 해석함으로써 지은의 구출에 낭도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고, 진성여왕이 이 미담에 가담하고 널리 선전한 점은 고조되고 있는 왕경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배층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효종의 정치적 부상과 현강왕녀와의 혼인은 화랑이 당시 왕실과 연결된 정치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각기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녀지은 설화가 던지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갖게 되었음은 다행이다.

필자는 이 설화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단지 지난 연구의 성과를 이용하여 설화를 해석하는데 그쳤음은 유감이다. 그러나 설화에 歷史의 옷을 입히는 것은 역사에 說話의 칠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주요어 : 효녀 지은 설화, 진성여왕, 화랑, 포석정, 효종.

참고문헌

- 권영오,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집, 부경역사연구소, 2002. 6.
- ,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 76집, 大丘史學會, 2004. 8.
- 金昌謙, 「新羅 景文王代 修造役事の 政治史的 考察」, 『閔丙河教授停年 紀念論叢』, 1988.
- ,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59합집, 韓國史學會, 1999.
- 申虎澈, 「新羅의 滅亡과 甄萱」, 『忠北史學』 2집, 忠北史學會, 1989.
- 음선혁,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全南史學』 11집, 全南史學會, 1997.
-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李鍾旭, 「新羅下代の 骨品制와 王京人의 住居」, 『新羅文化』 제7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 全基雄,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 17집, 釜大史學會, 1993.
- , 「新羅末期 政治社會의 動搖와 6頭品知識人」, 『韓國古代史研究』 7집, 韓國古代史研究會, 1994.
- ,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집, 釜山史學會, 1989.
- , 「新羅 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4.
- 鄭容淑, 「신라의 女王들」, 『한국사시민강좌』 15집, 一潮閣, 1994.
- 曹凡煥,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 歸附」,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4.
- ,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歷史學報』 129집, 歷史學會, 1991.

_____,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2003.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Abstract

Faithful Daughter Jieun's Story(孝女知恩 說話)
and Hwarang Hyojong during the Reign of
Queen Jinsung

Jeon, Ki-Woong

A story about Jieun and her mother is written in Samkuksagi and Samkukyusa. This story tells us about Jieun who looked after her own mother so well, got rewarded for her goodness. But the story also shows many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Sillian society at the time through mentioning the reactions of Queen Jinsung and Hwarang Hyojong as well as his followers(Nangdo) to Jieun's story, Hyojong's marriage to a daughter of King Hungang, and Hwarangdo's excursions to Posukjung. Overall, this story can be a significant record on the high and low classes of Kungju, the capital of Silla.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Jieun's story is laid on the fact that the charity was started by Hyojong, but eventually taken up by his parents as well as the followers, and the Queen herself. Moreover, the whole event subsequently led Hyojong to get married to a princess. Therefore, this story goes beyond a story about the rich helping the poor. However, here we are faced with a problem of how to interpret this story.

I thus analyse the story as a way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reign of Queen Jinsung. I also attempt to explain the real reasons for the excursions to Posukjong, which eventually led Nangdo to take part in helping Jieu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analysis is that the excursions were not for a mere entertainment, but designed to harness their group spirit, urgently needed in front of national crises, such as bandits' anti-dynastic activities. The Queen's reaction to Jieun story also aimed to rid of criticisms among the people of Kungju towards the monarchy. Jieun story also tells us the fact that Hwarangdo was a political group that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Monarchy. The story about Hyojong and his marriage to a princess assures us of their relations.

On the surface the story is about Jieun but in a real sense informs us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Key words : A Story about Jieun, Queen Jinsung, Hwarang, Posukjung, Hyojong.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